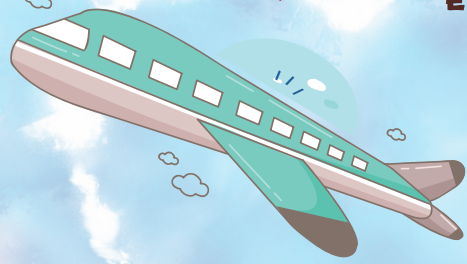


# 살렸어요! 살았어요!



류 현 옥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그때가 1월 14일이었으니까 벌써 5개월 남짓 지난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 때의 상황을 지금도 눈을 감고 떠올려보면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마도 안타까움 때문이라. 올해는 필자가 집사람과 살림을 차린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한번도 같이 해외 여행을 나가보지 못했던 터라 일찌감치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해외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런 것처럼 여행 일

정을 만들기 위해 미리미리 당직 근무를 채우느라 여행 전날까지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김해 공항으로 가서 팜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

팜까지 비행 시간은 4시간 정도, 집사람과 맥주 2잔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실핏 잠이 들었는데, 다급하게 나를 깨우는 집사람 말이 기내 방송에서 의사를 찾으시니 빨리 나가보라는 것이다. 얼떨결에 비즈니스석 구역까지 갔더니 무슨과 전공이냐고 승무원이 물어 보길래 '응급의학과'라고 대답했고, 먼저 도착해 계셨던 연세 지긋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환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전에도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가보면 실신 정도가 가장 심했던 경우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환자가 우선 안전불패, 어쩔줄 몰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안긴 애기(27개월)여서 잠시 당황스러웠다.

한눈에 보아도 애기는 호흡곤란 정도가 심했다. 청색증은 없었지만, 호흡수가 빨랐고, 호흡 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상태, 승무원에게 청진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산소를 줄 수 있도록 산소통하고 마스크를 부탁했다. 폐음을 들어보니 전 폐야에서 천명음이 뚜렷하게 들렸다. 애기 엄마에게 물어보니 천식 병력은 없었다고 했고, 다만 출국 전날부터 미열과 감기 증상이 있어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마침 같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간호사 분에게(나중에 알고 보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셨다) 애기 혈압 측정을 부탁드렸고, 수축기 혈압이 100 mmHg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무원으로부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기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쉬웠지만, 기내 보유 약품 대장을 받아서 보니 약품명, 성분명, 용량, 사용법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벤톨린 분무 흡입기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애기 호흡에 맞추어 들숨 때 흡입될 수 있도록 분무를 4차례 해주었고, 반응은 곧바로 나타나서 애기 호흡이 점차 안정이 되었고, 청진 상 천명음도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주면서 지켜보았을 때 애기가 호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반복적인 혈압 측정 결과도 안정된 수치를 보여서 애기 엄마에게 응급처치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다시 좌석으로 돌아와서 '혹여 내가 빠트린 조치는 없었나' 되짚어 보고 있던 차에 승무원이 와서 팜에 도착할 때까지 애기 옆에 있어주시기를 요청했다.

애기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면서 혹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무원에게 기내 의료장비를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니, 탑승 입구 구역에 장비함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장비함

을 열어보니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후두경이 성인, 소아용으로 2종류 있었고(бат테리를 갈아 끼워야 했다), 기도 유지기와 삽관 튜브도 크기 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밸브마스크가 성인용 밖에 없는 것이 옥에 티였다. 둘러보니 승무원들이 식사를 서빙할 때 사용하는 카트가 애기를 눕혀 놓기에 딱 맞는 크기로 보여, 다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은 서빙 카트를 복도에 가져오고, 나는 애기 머리맡에서 기도 확보 및 환기 보조를, 간호사는 정맥로 확보를, 다른 의사 선생님과 승무원은 가슴 압박을 교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짜놓았다.

서로의 역할을 정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애기 호흡이 다시 악화되었고, 벤톨린을 준비하던 중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애기 아빠로부터 애기를 받아서 승무원이 가져온 카트 위에 눕히고, 맥박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15대 2의 비율로 진행하기를 몇 주기 지나지 않아서 맥박이 확인되었지만, 기관삽관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다시 맥박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재개하였다. 자동제세동기 상 무수축 리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쉽게도 정맥로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삽관 튜브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여야 했다.

익숙한 병원의 소생실이 아닌 비행기 안에서의 심폐소생술이 낯설었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침착하려 애를 썼다. 에피네프린 투여가 5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니까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다.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던 시간동안 침착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백발의 의사 선생님, 승무원들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다. 애기의 자발 호흡이 돌아오고, 백마스크로 호흡을 보조하면서 착륙을 기다렸다. 기장이 현지 구급대에 앰블런스를 신청하였고, 필자는 애기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현지에 있는 Guam Memorial Hospital로 가서 애기를 인계하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권도, 휴대폰도 지갑도 없이 입국 수속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깨달았다. 현지 시간은 자정을 이미 넘어섰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얼마 기다리지 않아 항공사 현지 지사장님이 병원에 오셨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지사장님께 애기를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팜에서 지내기를 3일인가 있다가 한국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고, 결과가 좋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팜에서 5일을 보내고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데, 지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기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항공 이송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깝고 낙심한 마음이 컸었다.

어떻게 이 사연을 알게 된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쓰기까지 망설임이 컸다.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연을 드러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응급상황 대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 분들과 성함은 모르지만 진심으로 도와주셨던 백발의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께 이제서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비행기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